

제목은 같은데 출판사가 다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위한 역사 시리즈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는 5권 신라, 가야편까지는 '고래실' 출판사에서, 6권 발해편 이후의 책들은 '여유당' 출판사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다. 무슨 사연일까? 여유당의 대표이자 이 대형 시리즈를 직접 기획한 조영준 사장은 보도자료와 책의 서문을 통해 '이 일 저 일 어려운 과정을 거친 끝에' 라는 언급만 남기고 있다.

# 자식 같은 책, 버릴 수 없었지요



## 베테랑편집자의 오랜 소망

출판계에 발을 디딘 지 15년째. 조영준 사장은 사계절, 아이세움, 고래실 등에서 책을 만들어 왔다. 사계절에선 역사신문, 생활사박물관, 세계사신문, 그리고 여러 인문서들을 작업했고, 아이세움에선 그림으로 만나는 세계의 예술가 시리즈를 기획한 그는 출판 동계에서 스테디셀러를 꿈꾸는 기획 편집자로 이름을 알려 왔다. 그러나 이런 저런 많은 책들을 경험했던 편집자에게도 아쉬움이 없을 리 없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이제 역사의식이 싹트는 시기인 초등학교에서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물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고픈 바람이 컸다.

“결국 1999년경에 사계절출판사에서 퇴직하면서 저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온 자료들을 정리했고, 책에 대한 구상을 가시화시켰지요. 이후 고래실의 기획실장으로 들어가게 됐죠. 출판사측에서 자문을 대고, 저는 기획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고래실은 고고학 관련 전문 출판물을 꾸준히 내고 있는 학연문화사의 어린이 브랜드. 흔한 말로 돈은 안 되지만 의미 있는 고고학 관련 도서를 15년 남짓 변함없이 출간하고 있는 뜻을 믿고 학연출판사에서 내민 손을 잡았다.

그러나 한 기획 편집자의 신선한 아이템과 열정, 그리고 뜻심 있는 출판사의 투자로 완성될 시리즈는 점차 난항을 겪게 됐다. 일단 역사물이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됐고, 만만치 않은 비용 투자, 예상치 못한 일정 지연이 계속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맞게 된 것이다.

## 장기전이 불가피한 역사물, 난항은 계속되고

실제로 시리즈 중에서도 역사물을 만드는 편집자들은 긴장을 늦출 새가 없다.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완간되어 한 질의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아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 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일정은 일정대로 지연되고, 시간이 지연 되는만큼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게 불어나니 심리적 부담 역시 배가됐다. 또한 그의

- 《아! 그렇구나 우리역사》
- 원시시대 송호정 지음 | 김은정 그림 | 고래실 | 202쪽 | 값 12,500원
- 고조선·부여·삼한 송호정 지음 | 김은정 그림 | 고래실 | 202쪽 | 값 2,500원
- 고구려 여호규 지음 | 김형준 그림 | 고래실 | 336쪽 | 값 15,000원
- 백제 강중훈 지음 | 김은정 그림 | 고래실 | 280쪽 | 값 12,500원
- 신라·기야 나희라 지음, 김태석 감수 | 이선희, 지연주 그림 | 고래실 | 값 15,000원
- 발해 송호정 지음, 송기호 감수 | 여유당 | 232쪽 | 값 15,000원
- 고려1 윤경진 지음 | 여유당 | 272쪽 | 값 15,000원
- 고려2 윤경진 지음 | 여유당 | 292쪽 | 값 15,000원

이 기획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까지 있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구대의연한 역사서-작가들이 대중적 재미만을 염두에 두고 쓴 책들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이 쓰되 우리 역사를 꿰뚫으며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고 생각거리들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또한 기존의 영웅과 사건 위주의 서술보다는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면서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책이어야 했다. 그래야만 우리 역사 전체를 제대로 보는 눈을 키울 수 있고, 진정으로 과거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서였다.

“기본적으로 전문 필자들은 아동, 청소년물에 익숙지 않잖아요? 거듭 기획회의를 하고 만남을 가졌지만 아무래도 필자들의 무거운 글을 독자층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기가 무척이나 힘들더라고요. 여기에 일러스트도 철저히 고증해야 하고, 구하기 힘든 사진 자료도 여기저기서 쟁겨야 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는 마침내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시리즈 전체의 출판권을 갖고 나왔다. 비용문제, 시간 지연 문제 등 출판사측 부담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니 차라리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 이유를 물으면 ‘자기 자식’을 두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였다. 한편 출판 시장에 이 소문을 듣고 몇몇 큰 출판사에서 연락을 해왔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다.

“매혹적인 제안이었지만 브랜드보다 내용과 질로 인정받는 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 강했지요. 특히 대형 출판사가 독점해 가는 시장 논리에 일조하고 싶지 않았지요.”

### 자식같은 책, 버릴수 없어 출판사 차리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를 계기로 출판사를 하나 차리게 됐다. 바로 ‘여유당’이다. 여유당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또다른 당호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스스로 조심하고 거듭나면서 마침내 자신의 갈 길을 간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그런 길을 가고 싶은 소망이 담긴 이름이다. 이 책의 나머지 시리즈는 여유당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다. 현재로선 다른 직원이 아무도 없다. 사장 혼자서 편집·영업·경영 등을 감당해내야 하는 외로운 1인 다역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애정이 가는 출판물을 입양 보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키워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털어놓는다.

혼자 만든다고 오류투성이 책을 만들 것이란 추측은 금물이다. 그는 “웬만한 대형 기획물에 버금가는 노력을 한다”며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겠다고 장담한다. 수차례에 걸쳐 질리도록 교정,

교열을 보고 또 보는 것은 기본이다. 각권마다 담기는 200여 장의 유적, 유물 자료사진들과 일러스트는 학계의 고증을 꼼꼼히 거치는 정석을 고집한다.

“2001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 출판사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났죠. 대부분이 해외에서 라이선스 받아다가 작업을 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든 콘텐츠는 투자도 많이 하고 작업 기간도 길기 때문에 선뜻 시작하기 힘들겠지요. 그만큼 지난한 과정인 걸 알고 있지만 기획물만큼은 정말 제대로 공들여 완성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고래실에서 여유당으로 출판권이 옮겨지면서 손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니아 독자들은 왜 책이 안 나오느냐, 왜 이름이 바뀌었느냐는 문의를 해왔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출판사를 옮기면서까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로 인해 오히려 살 수 있지만, 그만큼 질적으로 담보된 책을 만들 자신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 국사 교과서에선 대조영이 발해를 세운다 말하면서 발해 역사를 몇 줄로 정리했지만 저희 책은 발해의 역사를 한 권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조영은 고구려 사람이 아니라 말갈 사람인데 왜 고구려 사람이라고 했느냐란 본질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는 역사물을 향한 한 기획편집자의 집념으로 완성되고 있는 책이다. 이미 나와 있고, 앞으로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까지 총 8권<sup>고려 2편</sup>까지 출간된 상태고 나머지 15권까지도 올해 안에 완간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존에 고래실에서 출간된 5권까지도 6월부터 개정판으로 다시 선보일 예정이다. 조영준 사장은 “지금 소망은 다른 게 아니다. 주문 폭주는 꿈조차도 꾸지 않는다”며 우선 이 시리즈가 하루 빨리 완간돼 아이들 책꽂이에 한 질씩 꽂혀 손때가 묻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 하지만, 실제로 담긴 내용은 어른이 보기에 충실하고 재미납니다. 새로운 역사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읽지만 어른들도 읽는 책. 먼 훗날 일종의 패밀리북으로 남아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출판**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조영준 사장